

이행(passage)* 하는 선(line)

김성윤(화가)

2022년 5월

이세경의 작품을 처음 본 것은 2013년 갤러리 시몬에서 열린 ‘디테일’ 전에서였다. 시간동 부근으로 전시를 보러 가면 항상 뭔가에 쫓기듯 전시장을 빠르게 훑어보게 되는데, ‘디테일’ 전에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작품의 디테일을 의식하며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던 기억이 난다. 전시장에는 제목이 지시하는 것처럼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을 요하는 작품과 시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작품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세경의 ‘디테일’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은 안료를 대신해 접시를 장식하고 있었다. 장식의 도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면) 접시는 고상한 취미를 가진 수집가의 수집품 같았고, 일상적인 물건에 변형을 가하여 혐오와 매혹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작품은 초현실주의 오브제에 가까워 보였다. 작품은 좌대와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견고해 보이는 유리 상자에 담겨 관람자와 작품을 철저하게 분리했는데, 이는 박물관의 디스플레이 방식을 따른 것 같았다. ‘접시’를 유물과 같은 물신 숭배적인 대상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전시 방식은 미술품의 지위와 미술 제도를 문제 삼는 제도 비판 전략을 떠올리게 했고, 식기와 공예라는 형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페미니즘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작가와 같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작가와 작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면서, 그의 작품들이 그러한 전략적인 동기보다는 사적이고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작가 이세경을 떠올릴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머리카락일 것이다. 독일 유학 시절부터 작업의 지지체로 줄곧 도자 식기를 사용해왔고 카펫이나 타일 등 다른 지지체 위에도 머리카락은 빠짐없이 등장했으니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상인 듯하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식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립항으로서 머리카락에 불결함이라는 반응이 뒤따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항 대립만으로는 머리카락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 혐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작가는 식기를 장식하기 위해 전통적인 도안을 차용하고, 안료를 대신해 머리카락으로 도안을 채운다. 정교하게 부착된 머리카락은 접시 위에서 선으로 변환되고 이 선들이 모여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때 얇은 선은 머리카락으로 거의 완벽하게 대체되지만, 농담과 음영,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면은 머리카락 선의 집합으로 대체되면서 원본과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물론 이는 재료를 다루는 작가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면이나 농담으로 환원될 수 없는 머리카락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작가의 작품이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이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대립항에 따라 머리카락 자체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작가가 일부러 늘어뜨려 놓은 머리카락 다발은 혐오의 기폭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형상에서 떨어져 나와 길게 늘어진 선은 오히려 부드러운 시각적 촉각성을 유발하며 우리를 매혹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혐오는 머리카락이라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정성 들어 채색된 농담을 기대했던 관람자를 배반함으로써 발생한다. 얇게 이어지는 선을 따라 자연스레 이어지던 관람자의 시선은 선의 끊김으로 인해 흐트러지고, 그러한 시선의 분열로 인해 관객은 머리카락이라는 물질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많이 알려진 도자 작업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리컬렉션 Recollection’ 프로젝트는 혐오라는 태그를 떼어내고 관람자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리컬렉션 Recollection’ 프로젝트는 참여자에게 내밀한 이야기와 그에 관련한 이미지를 제공 받고 참여자의 머리카락으로 해당 이야기와 이미지를 타일에 재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식기를 타일(특유의 질감으로 인해 마치 종이처럼 느껴지는)로 바뀌서 청결한 식기와 불결한 머리카락이라는 대립항을 지우고, 전통적인 도상 대신 참여자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참여자의 DNA로 채우면서, ‘리컬렉션 Recollection’ 프로젝트는 한 개인의 초상을 보듯 친밀한 감정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것 같았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악보를 보낸 참여자와 함께한 작품인 <Recollection_Piano score>였다. 참여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연주했던 곡의 악보 이미지를 보내왔는데, 문양을 차지하고 있던 유기적인 곡선과 농담 대신에 규칙적인 선으로만 이루어진 악보는 머리카락으로 구현하기에 최적의 이미지였다. 악보는 ‘끊김’ 없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머리카락의 물질성은

전혀 눈치챌 수 없었고 약간의 두께감으로 인해 오히려 인쇄된 것보다 더 선명해 보였다. 머리카락의 평균 두께는 100 micrometer로 손으로 그어서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서 구현된 선의 굵기와 일정함, 선명도는 다른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감각적 특질이었다. 이 대체 불가능한 선은 머리카락이 사람들의 기대를 전복시키는 역할을 넘어 선이라는 조형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 같았고, 독특한 재료의 사용과 함께 특이한 위상을 차지한 작가를 한 가지 재료를 다루는데 통달한 마이스터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돼주었다.

9년 만에 열리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 ‘The Nature of Line’ 은 전시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머리카락을 선이라는 조형적인 요소로 환원시키고, 특수한 물질성을 넘어 미적인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시처럼 비친다. 도예를 전공하며 학사와 석사를 마친 작가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면서 현대미술로 전공을 바꾸게 된다. 작업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흙이라는 물질에 한계를 느끼던 중 자신의 머리카락에 주목하게 되었고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종이에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놓아가며 선으로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자전적인 이야기에 착안해 접시와 머리카락이라는 불순한 조합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 요리 연구가였던 어머니의 영향과 어린 시절부터 긴 머리를 고수했던 자전적인 측면에 도예를 전공했던 이력이 더해져 내리게 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도자기와 타일, 카펫 위에 머리카락을 붙이는 작업의 모태가 되었던 초창기 드로잉으로 돌아간다. (이 드로잉 작업은 작가를 알린 방법론에 모태가 되었음에도 거의 선보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식기는 사라지고 종이의 질감을 지닌 타일이 주된 지지체로 등장하면서(실제로 종이가 지지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드로잉이라는 형식이 부각된다.

드로잉은 회화의 결과를 앞서 결정짓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매체적인 관점에서 회화를 위한 사전 단계 정도로 인식되어 왔고 미완성의 상태로 취급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서 그러한 위계질서가 와해되었고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시되면서 드로잉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회화의 바탕 면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순응적인 것이라면 드로잉의 여백은 선을 확보하게 하는 능동적인 힘을 지닌다. 회화의 견고한 자기 완결성이 시각에 국한된 문제라면 드로잉은 매체적 한계를 넘어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서, 어린아이의 낙서, 프로세스 아트, 대지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결정의 상태를 지향하는 모든 실천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회화를 정해진 길을 향해 가는 여정에 비유한다면 드로잉은 정처 없이 떠돌다 뜻밖의 세계와 조우하게 되는 낯선 여행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와 드로잉을 나누는 이러한 구분 위에 작가의 작업을 놓아 본다면 이번 신작에서 보이는 변화가 반갑게 느껴질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정해진 형상을 채우겠다는 목적성을 버리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쌓아가며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 최초의 머리카락이 그 본성에 따라 놓이면 이 머리카락이 그다음 머리카락이 놓일 위치를 결정짓는다. 뒤따르는 머리카락들이 규칙적으로 쌓이는 와중에 발생하는 작은 차이는 선의 움직임에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양상이 파동을 만들어감에 따라 어떤 형상이 도출된다. 형상은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사암 협곡 같기도 하고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연을 닮아있는 이 선들의 집합은 머리카락의 굵기, 탄성 등 그 성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지체에 안착되는데, 머리카락이 배경을 뒤로하며 선으로 환원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선을 굶는 것과 놓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 발생한 흔적과는 달리 머리카락은 화면에 아무런 손상을 가하지 않고 살포시 놓인다. 작가가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집어 조심스럽게 놓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화면에 안착된 선의 부드러움은 머리카락의 무게와 탄성을 시각적으로 전해주는 것 같다.

전작들에서 머리카락이 권위에 도전하고 관람자의 기대를 전복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불협화음을 자청했다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특정한 형상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머리카락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다채로운 효과들을 그려낸다. 이 선들의 다채로움을 보면서 이제 작가가 물질의 세계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드러운 곡선과 파동이 그려내는 에너지, 자연을 닮은 형상은 머리카락이라는 재료를 하나의 사실로 드러나게 하고 파편화된 신체의 일부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 같다. 작가의 ‘드로잉’에서 긴장과 안정을 동시에 느꼈다면 이는 머리카락과 선, 물질과 형상을 오가는 운동성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 문헌

- [1] 할 포스터, 로잘린드 크라우스, 이브알랭 부아, 벤자민 H.D. 부클로, 데이비드 조슬릿,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신정훈 등역, 세미콜론, 2016, 146쪽